

# 正經과 奇經의 相互關係에 대한 研究

白上龍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校室

##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Jeong-kyung*(正經) and *Ki-kyung*(奇經)

Foregoing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travel route, distribution, function and operation of *Jeong-kyung*(正經) and *Ki-kyung*(奇經) comes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

1. *Jeong-kyung*(正經) is composed of congruous pairs between left and right which perpendicularly reach extremities, and is divided into *Eum-kyung*(陰經) and *Yang-kyung*(陽經) that act as obverse and reverse(表裏) of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 relations of *Jang-Bu*(藏府) they belong with, which are the sources of relevant *Kyung-ki*(經氣). *Jeong-kyung*(正經) specializes the corpus into *Kae-Hap-Chu*(開闔樞) and directs each part of them to manifest its own function. On the contrary, each one of *Ki-kyung*(奇經) has its characteristic route of travel. It is not directly supplied with the *Ki*(氣) of *Jang-Bu*(藏府), and its obverse-reverse(表裏) differentiation of *Eum-Yang*(陰陽) is defined with its own intrinsic function. The nature of *Ki-kyung*(奇經) is inclined to coordination rather than specialization, so that it preserves a harmonious homogeneity of the whole organism, coordinating the current of *Ki*(氣) in each part of the corpus which is specialized by *Jeong-kyung*(正經).

2. *Jeong-kyung*(正經) is divided into 12 pairs of *Kyung-maek*(十二經脈) like branches of plan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and intermediates communication between the *Ki*(氣) of *Jang-Bu*(藏府), the pivot of life, and the *Ki*(氣) of universe. So *Jeong-kyung*(正經) presides over the metabolism of vegetative *Ki*(氣) which is responsive to variations in the universe. *Ki-kyung*(奇經) brings the differentiated 12 pairs of *Kyung-maek*(十二經脈) back together into *Eum-Yang*(陰陽) and fuses their *Ki*(氣) into an unique *Ki*(氣) called *Won-ki*(元氣) which runs through *Im-maek*(任脈) and *Dok-maek*(督脈). So *Ki-kyung*(奇經) presides over animated consciousness and corporeal activity of an organism which autonomously surmounts variations in the universe and is not dependent upon them.

Consequently, a human being as an organism can maintain his corpus by means of differentiation operated by *Jeong-kyung*(正經) to manage the metabolism of *Ki*(氣) which participates in the vital activities responding to the *Ki*(氣)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that is wandering in the universe, and can preserve his life and coordinate vital activities to suit them for his aim of life by means of integration operated by *Ki-kyung*(奇經) and founded on *Won-ki*(元氣) to build an individual *Ki*-field(氣場).

Key Words : *Jeong-kyung*(正經), *Ki-kyung*(奇經), *Kae-Hap-Chu*(開闔樞)

## I. 序論

經絡은 신체의 내부에 위치한 藏府와 신체의 外的 構造를 형성하는 形體 즉 身形을 交通하는 인체 氣의 流注通路이다. 生命活動의 中樞라고 할 수 있는 藏府는 신체 내부에 위치하여, 신체 外部에 위치하면서 장부의 활동을 代行하는 筋骨 등 五體와 外候인 七竅 등과 空間的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 신체라는 하나의 틀에서 이렇게 空間的으로 떨어져 있는 각 분야들을 서로 연결시켜 天地四時 陰陽五行의 轉化에 相應하는 하나의 整體性 있는 生命場으로 엮어 合目的인 氣化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經絡이다.<sup>1)</sup>

經絡은 그 流注經路나 藏府와 상관관계에 따라 十二正經과 奇經八脈<sup>2)</sup>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기 독특한 自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輔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正經과 奇經의 특성과 역할에

대하여 『黃帝內經』과 『難經』을 비롯한 역대 중요문헌들을 통해서 고찰해보고, 나아가 두 經脈群이 사람 생명활동의 복잡한 기전 속에서 어떻게 어울리면서 調和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 II. 本論

十二正經은 十二經脈이라고도 하며, 五藏六府를 根源으로 하고 手足을 兩端으로 해서<sup>3)</sup> 身形의 세로방향으로 流注하면서, 장부와 身形 각 부분이 有機的인 統一性을 이루도록 해준다. 또한 각기 左右에 쌍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각 經脈에 소속된 고유한 經穴을 가지고 있다. 奇經八脈은 十二正經과 달리 장부를 근원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流注經路도 正經처럼 모든 經脈이 手足과 연관을 맺으면서 공통성이 있지 않으므로 奇經이라고 한다. 또 좌우 쌍으로 이루어진 正經과 달리 쌍이 있는 것이 있고 쌍이 없는 것이 있으며, 任脈과 督脈만이 고유한 經穴을 가지고 있다.

### 1. 正經의 分化

正經은 그 기능과 분포영역에 대한 分折方式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藏府와 相通하여 身體를 縱으로 六等分하여 선처럼 뻗어 자기가 根源하는 각 장부의 意志를 신체 곳곳으로 연락하고 用事하는 經氣의 통로로서 藏府의 代行者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體幹을 立體的인 구도를 통해 內外 層差別로 分割하여 그 위치를 점유하는 經脈의 陰陽屬性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이 생명체의 陰陽의 轉化過程 중에 각기 독특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開闔樞의 分化이다.

#### 1) 藏府의 代行者

正經 중 陽經은 신체의 陽部에서 流注하고 陰經은

·접수 : 2000년 1월 16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백상룡,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외과대학

(02-961-9183, ryong68@hanmail.net)

-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23. "論理人形, 列別臟腑, 端絡經脈, 會通六合, 各從其經, 氣穴所發各有處名, 谿谷屬骨皆有所起. 分部逆從, 各有條理. 四時陰陽, 盡有經紀, 外內之應, 皆有表裏."
- 2) 奇經八脈은 十二正經과 더불어 한의학 經絡學說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학뿐만 아니라 道家, 武家 등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奇經八脈이라는 공식명칭은 『難經』 27難과 28難에서 처음 보이는데, 十二正經과 호르는 계통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붙이고 있다. 『內經』에도 『難經』에서 奇經八脈이라고 정의한 8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을 十二正經처럼 한 계통으로 묶어 논하고 있지는 않다. 『難經』 이후 역대 醫家들은 『難經』의 奇經八脈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內經』과 『難經』에서 언급한 奇經八脈에 대한 논술들을 정리하고 보충하였다. 중국 明代 李時珍은 의학과 도가에서 논하고 있는 奇經八脈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체계있게 정리한 『奇經八脈考』를 저술하였다. 『奇經八脈考』는 奇經八脈의 발전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저술로, 奇經八脈 이론의 精華라고 칭송받고 있다.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174,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夫十二經脈者, 內屬於府藏, 外絡於肢節."

신체의 陰部에서 流注하여 신체 前後, 內外의 陰陽屬性을 분할하고 手經과 足經으로 나뉘어 신체 上下의 특성을 정한다. 다시 陽經은 太陽經, 少陽經, 陽明經으로 分化하여 陽部의 外側, 가운데, 內側을 따라 흐르고, 陰經은 太陰經, 厥陰經, 少陰經으로 分化하여 陰部의 外側, 가운데, 內側을 따라 흐르면서, 각 經脈들은 縱的인 流注를 통해 자기 자기가 流注하는 영역에서 자기가 소속한 藏府의 특성을 外顯한다.<sup>4)</sup> 그리고 이러한 經脈들의 특성을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經氣이며, 經氣의 근원이 되는 氣가 각 經脈이 根源하고 있는 藏府之氣이다.

따라서 五藏과 相通한 陰經에서 활동하는 經氣는 陰性을 띠면서 五藏의 의지와 상태를 반영하고, 六府와 相通한 陽經에서 활동하는 經氣는 六府의 의지와 상태를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藏府는 內在한 五行之氣의 氣勢에 따라 각자 고유한 성질을 띠므로, 각 經脈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장부에 따라 다시 독특한 성질로 特化되는데, 이는 經脈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즉 陰經에서 활동하는 經氣는 陰陽之氣 중 陰氣로서 특성을 띠면서 또 각 藏의 五行之氣 氣勢에 따라 자기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陽經에서 활동하는 經氣는 陽氣로서 특성을 띠면서 또 각 府의 五行之氣 氣勢에 따라 자기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sup>5)</sup>

그러므로 經脈의 氣들은 藏府之氣의 성질을 결정하는 陰陽五行之氣의 특성에 따라 陰氣, 陽氣로 나뉘고, 다시 그 陰陽 중에서 木氣, 火氣, 土氣, 金氣, 水氣 등으로 분화되어 각 經脈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또 자기의 근원이 되는 藏府의 陰陽 表裏關係에 따라서 表裏配合를 이루니 이것이 經脈의 表裏關係이다.

### (1) 太陽經 少陰經의 表裏

太陽經은 陰精에서 나온 陽氣를 體外로 發散하여 신체를 護衛하는 氣場을 형성하고, 少陰經은 陽氣를 거두

어 陰精을 굳세게 함으로써 형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다. 즉 太陽經과 少陰經은 서로 表裏가 되는데, 太陽經은 신체의 最 外部에 위치하여 陽氣의 활동을 活性化시키고 少陰經은 신체의 最 深部に 위치하여 陰精의 沈靜을 固密하게 함으로써, 生命을 담고 있는 신체가 內的으로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고 外部의 壓力에 대하여 생명활동의 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sup>6)</sup>

### (2) 陽明經의 太陰經의 表裏

陽明經은 外部에서 천지의 陰陽 二氣로 형성된 水穀을 받아들여 신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氣血을 생산하고, 太陰經은 陽明經에서 생산된 氣血을 전신에 공급함으로써 신체의 생명활동이 지속되도록 滋養한다<sup>7)</sup>. 즉 陽明經과 太陰經은 서로 表裏가 되어 신체 생리대사에 필요한 滋養分을 吸收, 功給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3) 少陽經과 厥陰經의 表裏

少陽經은 모든 經脈에 相火를 고르게 분포하게 함으로써<sup>8)</sup> 生命活動이 偏盛 혹은 偏衰되지 않도록 하며, 厥陰經은 氣血을 저축함으로써 생명활동 과정 중에 필요한 氣血의 지속적인 공급원이 된다. 즉 少陽經과 厥陰經은 서로 表裏가 되어 하나는 相火의 配分을 하

4) 洪元植, 上揭書, pp.79~84.

5) 凌耀星, 難經校注, pp.37~38. “手太陰, 陽明金也, 足少陰, 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 少陽木也, 生手太陽, 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 少陽火, 生足太陰, 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

6) 洪元植, 上揭書, p.119. “故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臟.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 陽盡於陰, 陰受氣矣. 其始入於陰, 常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爲周. 是故夜行一舍, 人氣行於陰藏一周與十分藏之八, 亦如陽行之二十五周, 而復合於目.”

7) 洪元植, 上揭書, p.112. “岐伯曰, 足太陰者, 三陰也, 其脈貫胃屬脾絡陰, 故太陰爲之行氣於三陰. 陽明者, 表也, 五藏六府之海也, 亦爲之行氣於三陽. 藏府各因其經而受氣於陽明, 故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8) 楊繼洲, 針灸大成,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208. “三焦行於諸陽, 故置一俞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 五臟六府之有病者, 皆取其原也.”

나는 氣血의 貯藏을 전담함으로써, 생명체 활동의 持續性과 統一性을 확보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陰經과 陽經은 각기 陰陽의 屬性과 五行之氣의 기세에 따라 分化된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면서, 藏과 府의 表裏關係에 따라 陰과 陽의 짝을 이루어 서로 보좌하여 一陰一陽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sup>9)</sup>. 이를 經脈의 表裏配合<sup>10)</sup>이라고 하며, 表裏가 되는 陰陽經은 서로 相合하여 陰陽의 轉化作用을 수행함으로써 장부의 의지가 身形 전 체에서 고르게 운영되어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陰陽氣血의 調和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sup>11)</sup>.

## 2) 正經의 開闔樞

正經은 또한 身形에서 위치와 작용에 따라 開, 闔, 樞로 그 특성을 特化시킬 수 있다. 開는 '열어 펼친다'는 뜻이며, 闔은 '닫아 저장한다'는 뜻이고 樞는 '문의 지도리처럼 열고 닫는 것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開의 작용은 精神이나 氣血을 陽化시켜 열어 펼치냄으로써 生命體 활동을 촉진하면서 소모시키며, 闔의 작용은 陰化시켜 닫아 거두어들이므로써 生命體 활동에 필요한 資源을 蓄積하면서 활동을 抑制한다. 樞의 작용은 이러한 開의 작용과 闔의 작용 중에 일어나는 精神氣血의 消耗과 貯蓄, 放出과 吸收 사이에 陰陽轉化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을 말한다<sup>12)</sup>.

開闔樞 分化를 살펴보면 六經은 三陰經과 三陽經으로 分化되어 身形의 內部와 外部를 관장하는데, 太陽經은 陽經의 開, 太陰經은 陰經의 開가 되며, 陽明經은 陽經의 闔, 厥陰經은 陰經의 闔이 되고, 少陽經은 陽經의 樞, 少陰經은 陰經의 樞가 된다. 이에 대하여 『素問陰陽離合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러한 까닭으로 三陽이 나뉘고 합함에, 太陽은 開作用을 하고 陽明은 闔作用을 하여 少陰은 지도리〔樞〕작용을 합니다. 밖에 위치한 것은 陽이 되고, 안쪽에 위치한 것은 陰이 되니, ... 이러한 까닭으로 三陰이 나뉘고 합침에 太陰은 開作用을 하고 厥陰은 闔作用을 하여 少陰은 지도리작용을 합니다.”<sup>13)</sup>

그러므로 陽經은 身形의 陽部인 體表와 上部를 담당하고, 陰經은 身形의 陰部인 體內와 下部를 담당한다. 따라서 血肉으로 이루어져 身形을 구성하는 構造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臟이나 腑까지도 그 上下, 內外의 위치에 따라 身形을 총괄하는 六經 중 어느 하나에 分屬되어진다. 이에 대하여 柯琴은 「六經正義」에서 각 經脈의 분야에 대하여 地面이라는 用語를 써서 보다 구체적으로 分割하고 있다.

“허리 윗쪽은 三陽의 地面으로 三陽은 外部를 주재하는데 裏部에 本源한다. 心은 三陽의 境界가 엇갈리는 地面이다. 안에서는 心胸으로부터 밖에서는 前頂으로부터 앞쪽으로 額顱 뒷쪽으로 肩背에 이르고, 밑으로 足部に 미치고 안쪽으로 膀胱에 相合하는 分野기 太陽의 地面이니, 이 經은 營衛를 統領한다. ... 안에서는 心胸으로부터 胃 및 腸에 이르고 밖에서는 頭顱로부터 顏面으로 말미암아 腹部에 이르고 아래로 足部に 미치는 分野는 陽明의 地面이다. 心部로부터 咽喉에 이르고 입과 뺨으로 나와 귀와 눈에 오르며 비스듬히 정수리에 이르고 밖으로 脇部에서 안으로 臍에 속하는 分野가 少陽의 地面이니, 이는 太陽의 다음으로 陽明에 가까이 위치한다. ... 허리 아랫쪽은 三陰의 地面으로 三陰은 裏部를 주재하고 外部에 미치지 않는다. 腹은 三陰의 境界가 엇갈리는 地面이다. 腹部에서 脾로 말미암아 大小腸 및 魄門에 이르는 곳은 太陰의 地面이 되고, 腹部로부터 兩腎 및 膀胱, 溺道에 이르는 곳은 少陰의 地面이 되고, 腹部에서 肝으로 말미암아 橫膈膜의 윗쪽으로 心에 이르며 脇肋으로부터 아랫쪽으로 少腹과 宗筋에 이르는 곳은 厥陰의 地面이 된다. ...”<sup>14)</sup>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36. “黃帝, 曰陰之與陽也, 異名同類, 上下相會, 經絡之相貫, 如環無端.”

10) 洪元植, 上揭書, p.95.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陰陽也. 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

11) 洪元植, 上揭書, p.213.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12)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서울, 大韓原典醫史學會誌VOL9, 大韓原典醫史學會, 1995, pp.4~6.

13) 洪元植, 上揭書, p.29. “...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外者爲陽, 內者爲陰, ...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14)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63. “腰以上爲三陽地面, 三陽主外而本乎裏, 心者, 三陽夾界之地也, 內由心胸, 外自前頂, 前至額顱, 後至肩背, 下及于足, 內合膀胱, 是太陽地面, 此

三陽經 중 太陽經은 身形의 心胸에서 背部와 後頭部, 膀胱, 足部에 이르는 신체외 後面을 차지하고, 陽明經은 心胸의 食道부위로부터 위로는 顔面部位, 아래로는 음식의 소화를 담당하는 胃 및 大小腸 부위를 차지하며, 少陽經은 太陽經과 少陽經이 접치는 咽喉와 耳目, 정수리, 脇部에서 膈에 이르는 영역을 차지한다. 三陰經 중 太陰經은 六腑에서 소화된 음식의 精微之氣를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陽明經의 안쪽면(胃, 大小腸의 五臟쪽 면)을 차지하고, 少陰經은 腎의 臟器가 위치하는 腹部의 下內側과 尿道 등 신체외 最深部를 차지하고, 厥陰經은 腹部의 肝으로부터 橫膈膜 上部의 心部와 脇肋의 下內側에서 宗筋에 이르는 少腹部를 차지하고 있다.

### (1) 太陽經과 太陰經의 開作用

太陽經은 陽氣의 活動과 消耗를 推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太陰經은 氣血의 供給을 충족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身形의 體表, 外部인 背部를 주관하는 太陽經은 三陽經의 우두머리이며<sup>15)</sup> 陽化作用의 주체로서, 體內의 氣血을 陽化시켜 外上部로 發散시키며, 身形의 體內, 裏部를 주관하는 太陰經은 氣血을 陰化시켜 內下部로 輸布시켜서 全身을 滋養한다<sup>16)</sup>.

즉 太陽經은 身形의 가장 外面인 後頭와 背部에 위치하고 三陽經의 우두머리가 되어 陽氣의 發散을 주도하고, 太陰經은 신체 內側 前面에 분포하면서 體腔의 안쪽 덜개가 되어 外部로부터 받아들인 天地의 精微之氣를 體內로 輸布시키는 작용을 주도함으로써, 각기 體外와 體內로 氣血을 펼쳐내어 소모시키는 開作用을 통해 生命體 生命활동을 촉진한다.

經統領營衛, ... 內自心胸至胃及腸, 外自頭顱, 由面至腹, 下及于足是陽明地面, 由心至咽, 出口頰, 上耳目, 斜至顛, 外自脇內屬膈, 是少陽地面, 此太陽差近陽明, ... 腰以下爲三陰地面, 三陰主裏而不及外, 腹者, 三陰夾界之地也, 自腹由脾及二腸魄門, 爲太陰地面, 自腹至兩腎及膀胱溺道, 爲少陰地面, 自腹由肝上膈至心, 從脇肋下及于少腹宗筋, 爲厥陰地面.”

15) 洪元植, 上揭書, p.116. “巨陽(太陽을 말함)者, 諸陽之屬也, 其脈連於風府, 故爲諸陽主氣也.”

16) 洪元植, 上揭書, p.119. “故太陰主內, 太陽主外.”

### (2) 陽明經과 厥陰經의 閻作用

陽明經은 身形의 外側 裏面(體腔을 貫通하고 있는 食道와 胃, 大小腸 등)을 담당하여 外界로부터 水穀之氣를 끌어들이어 신체 生命활동에 필요한 氣血을 生成하는 작용을 주도하며, 厥陰經은 太陰經과 少陰經의 사이에 위치하여 陽明經이 흡수하고 太陰經이 體內로 輸布한 氣血을 받아들여 蓄積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氣血의 貯藏庫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陽明經은 身形의 外側에서 外界로부터 氣의 吸收를 담당하는 三陽經 중 閻으로서 太陽經의 發散을 통해 소모되는 氣血을 外界로부터 흡수하여 再生하고, 厥陰經은 신형의 자체 生體代謝를 주재하는 三陰經 중 閻으로서 太陰經의 輸布를 통해 신체에 퍼져 쓰여지고 남은 氣血의 剩餘를 거두어 貯藏함으로써, 生命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소모되는 氣血의 공급원이 되어 生命활동의 持續性을 유지시켜 준다.

### (3) 少陽經과 少陰經의 樞作用

少陽經은 身形의 外側面을 따라 分布하면서 太陽經의 發散作用과 陽明經의 吸收作用을 조절하는 樞作用을 수행한다. 또한 少陽經은 陰經에서 陽經 방향으로 향하는 陽氣의 發散勢力 즉 인체의 陽化之氣인 相火의 放出을 조절함으로써 生體代謝 중 陽化의 속도를 조절해준다. 少陰經은 身形의 內面 중심부 즉 人體의 深部に 分布하면서 太陰經의 輸布作用과 厥陰經의 貯蓄作用을 조절하는 樞作用을 담당한다. 또한 陽經에서 陰經 방향으로 거두어지는 陰氣의 凝縮과 陰經에서 陽經으로 뻗혀 나가는 陽氣의 發生 즉 인체의 陰化之氣의 精華인 陰精(元陰)과 陽化之氣의 主體인 陽氣(元陽)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生體代謝의 陰化와 陽化를 조절한다.

즉 少陽經은 太陽經과 陽明經의 樞로서 陽氣의 發散과 吸收를 조절하며, 少陰經은 太陰經과 厥陰經의 樞로서 陰氣의 輸布와 貯藏을 조절한다. 동시에 少陽經은 六經 全體가 陽化作用을 통해 推動하려는 기세를 조절하며, 少陰經은 陰化作用을 통해 安靜하려는 기세를 조절함으로써, 陰陽의 轉化過程 중에 일어날 수 있는 陰陽의 偏盛이나 偏衰를 방지한다.

正經은 身形을 縱적으로 六等分하여 관찰함으로써

근원이 되는 각 장부의 의지가 身形의 어떤 부분에서 발휘되는 가를 나타내거나〔縱的인 流注〕, 開闔樞의 작용에 따른 立體的인 地面으로 分割되어 空間的인 위치에 따른 각 작용의 補完관계를 나타내는 가에 상관없이〔立體的의 分割〕, 모두 그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經氣에 의해 그 특성이 좌우된다. 즉 太陽經의 地面은 太陽經 經氣의 작용에 相合하며, 陽明經의 地面은 陽明經 經氣의 작용에 相合한다. 단지 經脈의 종적인 흐름은 종적인 領域의 分化 속에서 소속 藏府와 經脈의 內外一體性和 經氣의 交流를 나타내고, 立體的인 分割은 氣血이 身形의 內外로 出入할 때, 신체 전체가 하나의 氣場을 형성하면서도 空間的인 內外的 위치에 따라 부위별로 特化된 性向과 작용을 管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正經은 안으로 藏府, 밖으로 身形을 연락하여 묶어주면서, 生命體의 身形 전체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代謝過程 중에 소요되는 氣血의 出入을 管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正經은 생명체가 天地와 氣를 交流할 때 氣交의 主體로서 天地自然과 相通하면서 氣를 吸收, 排泄하는 대사 즉, 생명체의 植物的인 기능을 담당하는 分野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과정은 특정 經脈의 幹線이나 藏 및 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身形 全體에서 統合의 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니, 經脈의 幹線과 경맥의 根源인 藏과 府가 氣血의 代謝와 出入의 주체라면, 실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은 開闔樞로 分化되는 身形 全體라고 할 수 있다.

## 2. 奇經의 統一

奇經은 모두 8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奇經八脈이라고 하며, 그 중 任脈과 督脈만이 자체 고유의 經穴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六脈은 대부분 正經의 經穴을 代用하고 있다. 또 正經과 달리 藏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그 기능에 따라 각기 독특한 流注經路를 가지고 있다.

### 1) 元氣의 行路 任脈과 督脈

任脈과 督脈은 根源이 같으며<sup>17)</sup>, 각기 身形의 前後

로 流注하여 經由하는 부위만 다른 한 흐름의 陰陽 兩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점에서 始原하여 前後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天地의 子午, 南北과 같은 지위를 인체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滑壽는 『十四經發揮』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任脈과 督脈은 根源을 하나로 하여 둘로 갈라졌으니, 督脈은 곧 會陰으로 말미암아 등으로 행하고 任脈은 곧 會陰으로 말미암아 배로 행한다. 무릇 사람의 신체에 任脈과 督脈이 있는 것은 天地에 子午가 있는 것과 같다. 사람 신체의 任脈과 督脈은 등과 배로써 말하고 天地의 子午는 南과 北으로써 말하니,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누어서는 陰과 陽이 섞이지 않음을 알고 합쳐서는 陰과 陽이 渾淪하여 틈이 없음을 알게 되니, 하나이되 둘이며 둘이되 하나인 것이다.”<sup>18)</sup>

任脈과 督脈은 모두 少腹에서 發源하여, 任脈은 신체 前面인 腹部쪽에서 눈으로 흐르고, 督脈은 會陰部를 끼고 돈 다음 背部쪽에서 頭部에 올라 눈의 안구석에서 이른다. 또 十二正經 중에는 太陽經과 少陰經, 五藏 중에는 心과 腎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瀉精之處인 陰器를 감싸 흐르고 出神之處인 頭目<sup>19)</sup>을 맺고 있다. 이는 임독맥이 신형을 전후로 가르고 흐르면서 생명의 근원인 精과 神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任脈과 督脈은 인체의 前後를 한 길로 통하게 하는 陰陽轉化의 중심으로,

17) 任脈의 발원처인 中極은 臍下 4寸에 위치하니, 少腹의 아랫쪽이다. 督脈은 뚜렷하게 부위를 정하지 않고 少腹이라고만 하였는데, 역대 醫家들은 이를 같은 부위로 논하고 있다. 『古今醫統大全』 卷六에서 “任與督脈, 爲人身陰陽之綱領, 一源而二岐, 猶太極而生兩儀也. 督則由會陰而行背, 任則由會陰而行腹.”

18) 滑壽 原著, 校註古本十四經發揮, 旋風出版社, p.72. “任與督, 一源而二岐, 督則由會陰而行背, 任則由會陰而行腹. 夫人身之有任督, 猶天地之有子午也. 人身之任督以背腹言, 天地之子午以南北言, 可以分, 可以合者也. 分之於以見陰陽之不雜, 合之於以見渾淪之無間, 一而二, 二而一者也”

19) 洪元植, 上揭書, p.57.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342. “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故神勞則魂魄散, 志意亂,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也. 目者, 心使也, 心者, 神之舍也”

‘太極과 兩儀’가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나, ‘陰極則陽, 陽極則陰’이라는 陰陽互根과 一而萬殊의 이치를 생명체 안에서 구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任脈은 陰脈之海, 督脈은 陽脈之海가 되어, 인체의 모든 經脈들을 陰과 陽으로 分化하여 다스린다. 道家의 內丹 修練法에서 任脈과 督脈은 陽火와 陰精〔陰符〕이 오르고 내리는 길로서 인체 생명의 두 주체인 坎水〔腎水〕와 離火〔心火〕가 서로 交通하는 곳이며,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氣의 통로 즉 八脈과 九竅, 十二經脈, 十五絡脈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李時珍은 『奇經八脈考』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任督二脈은 사람 신체의 子午이다. 이에 丹家〔內丹을 수련하는 사람〕가 陽火와 陰符를 升降시키는 길이며 坎水와 離火가 交媾하는 터전이니, … 『大道三章直指』에서 말하기를, 丹을 수련하는 사람 몸 가운데 한 구멍〔竅〕을 玄牝이라고 하니 바로 乾의 아래 坤의 위에 있으며, … 坎과 離가 交媾하는 곳이니 사람의 신체 天地의 正中에 있어 八脈과 九竅, 十二經, 十五絡이 연결되어 모이는 곳이며, 텅 빈 한 구멍〔穴〕으로 黍珠를 매달고 있으니 醫書에서 任督二脈이라 이른다. 이는 元氣가 말미암아 생겨나는 곳이며 참된 숨〔眞息〕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곳이니, 丹을 수련하는 사람이 이 구멍을 알지 못하면 참된 숨이 생겨나지 않아 神의 化生이 基礎가 없다. … 사람이 능히 이 二脈을 통하면 百脈이 모두 통한다.”<sup>20)</sup>

즉 任脈과 督脈은 인체 생명의 根源之氣인 元氣가 생겨나는 곳이며 생명활동의 시작이자 끝인 참된 숨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멍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재하는 神의 化生處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任脈과 督脈은 신체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인 元氣 즉 元陰과 元陽이 활동할 수 있는 陰極과 陽極을 세우는 經脈으로,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陰陽

二氣를 轉化함으로써 모든 陰脈과 陽脈을 주재하는 經脈의 海가 된다. 또한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氣의 활동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生命意志의 주체인 神의 化生을 가능케 하니, 생명의 本源之氣인 元氣의 流注路線이라고 할 수 있다.

## 2) 經脈의 一體性和 維脈

維脈은 陰維脈과 陽維脈으로 나뉘며 서로 表裏가 되어, 각기 陰經과 陽經을 그물처럼 엮어주고 있다<sup>21)</sup>. 維脈의 이러한 연락을 통해서 모든 陰經과 陽經들은 각기 자기의 陰陽屬性에 따라 서로 有機的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維脈은 陰陽의 分化, 再分化<sup>22)</sup>에 따라 서로 나뉘어진 陰陽의 諸經을 묶어줌으로써, 分化 속에 統一〔陰陽의 離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陽維는 陽에서 엮으니, 그 脈은 諸陽之會에서 일어나 陰維와 더불어 모두 身에서 그물처럼 엮고 있다. 만약 陽經이 陽에서 엮을 수 없으면 溶溶히 몸을 거두어 가눌 수 없다. … 陰維는 陰에서 엮으니, 그 脈은 諸陰之交에서 일어난다. 陰經이 만약 陰에서 엮을 수 없으면 悵然히 失志한다.”<sup>23)</sup>

陰維脈과 陽維脈은 각기 陰部인 身形의 內部와 陽部인 外部에서 흐르면서<sup>24)</sup>는 인체의 모든 經脈들을 그 陰陽의 屬性에 따라 分割하여 連絡해서 한 經脈처럼 엮어준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維脈은 각 經脈들이 分化속에서 調和 즉 統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表와

21) 凌耀星, 上揭書, p.55. “陽維. 陰維者, 維絡於身.”

22) 正經은 三陰三陽의 分化原理에 따라 6으로 나뉘고, 다시 手足의 分化에 따라 12經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別絡이 나와 각기 독자적인 위치와 기능을 갖는다. 奇經도 正經처럼 다양하게 分化되어 있지는 않지만, 陰經과 陽經으로 二分되고, 여기에 많은 別絡이 岐出하여 가닥을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3) 滑壽, 上揭書, pp.79~80. “陽維, 維於陽, 其脈, 起於諸陽之會, 與陰維, 皆維絡於身, 若陽不能維於陽, 則溶溶不能收持. … 陰維, 維於陰, 其脈起於諸陰之交, 陰若不能維於陰, 則悵然失志.”

24) 李時珍, 上揭書, p.1751. “張潔古, 曰衛爲陽主表, 陽維受邪, 爲病在表, 故苦寒熱, 營爲陰主裏, 陰維受邪, 爲病在裏, 故心痛, 陰陽相維, 則營衛和諧矣.”

20) 李時珍, 本草綱目 奇經八脈考, 서울, 高文社, 1962, p.1767. “任督二脈, 人身之子午也. 乃丹家陽火陰符升降之道, 坎水離火交媾之鄉, … 『大道三章直指』, 云修丹之士, 身中一竅, 名曰玄牝, 正在乾之下坤之上, … 坎離交媾之地, 在人身天地之正中, 八脈九竅十二經十五絡聯轡, 虛間一穴, 空懸黍珠, 醫書謂之任督二脈, 此元氣之所由生, 眞息之所由起, 修丹之士, 不明此竅, 眞息不生, 神化無基也, … 人能通此二脈, 則百脈皆通.”

裏에서 營氣와 衛氣의 원활한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身形 內外의 經氣 흐름을 四通八達하게 한다.

### 3) 意識 및 身體의 活動과 蹻脈

蹻脈은 陰蹻脈과 陽蹻脈으로 이루어져 表裏를 이루며, 그 순행경로는 少陰經, 太陽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陽蹻脈은 足太陽經의 別脈으로 太陽經의 작용을 보좌하고, 陰蹻脈은 足少陰經의 別脈으로 少陰經의 작용을 보좌하면서<sup>25)</sup>, 深部에 위치한 少陰經과 表部에 있는 太陽經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 즉, 蹻脈은 太陽經과 少陰經을 연락하여, 身形의 內部로 陽氣가 潛藏하고 外部로 發散할 때 이들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신형의 운동과 의식의 활동여부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靈樞寒熱病』과 李時珍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陰蹻와 陽蹻가 陰陽이 서로 교차하여 陽經은 陰經으로 들어가며, 陰經은 陽經으로 나와 눈의 銳眥에서 서로 교차한다. 陽氣가 盛하면 눈을 부릅뜨고 陰氣가 盛하면 눈을 감는다.”<sup>26)</sup>; “陽蹻라는 것은 跟中에서 일어나 外踝를 따라서 身體의 左右로 上行하고, 陰蹻는 跟中에서 일어나 內踝를 따라서 身體의 左右로 上行하니, 機關[신체의 움직임을 발동하는 關節]의 蹻捷[날래고 민첩함]을 부리는 까닭이다.”<sup>27)</sup>

눈의 開闔은 昏睡와 覺醒 등 意識의 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藏府와 經絡 사이에 이루어지는 陰陽 二氣의 出入을 통해 일어나는데, 蹻脈의 이러한 氣의 出入을 담당한다. 즉 눈을 뜨면 陽氣가 衛氣로서 三陽經으로 나와 돌면서 體表를 운행하게 되므로 의식이 돌아와서 精神的, 肉體的 활동을 고양시키며, 눈을 감으면 陽氣가 陰氣로 변하여 五藏으로 들어가

무의식 속에서도 生命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데,<sup>28)</sup> 이러한 生命之氣의 陰陽 出入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蹻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蹻脈에 이상이 생기면 陰氣와 陽氣의 交叉가 이루어지지 않아 意識의 陰陽轉化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蹻脈은 男女의 陰陽에 따른 整體性의 차이가 있다. 性別이 陽인 남자는 陽蹻脈이 經脈으로 발전하고 陰蹻脈이 絡脈으로 쇠퇴해 있으며, 陰인 여자는 陰蹻脈이 經脈으로 발전하고 陽蹻脈이 絡脈으로 쇠퇴해 있다.<sup>29)</sup> 이는 蹻脈이 陰氣와 陽氣의 交叉에 따른 性別의 구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陽氣가 蹻脈을 통해 身形의 三陽經으로 發散되어 나오면 意識과 身形의 覺醒과 活動性이 제고되고, 五藏으로 잠입하면 意識과 活動性이 잠복하게 되는데, 이를 교통하는 것이 蹻脈이다. 그러므로 蹻脈은 身形의 內外 部 間에 陽氣의 出入통로가 되어, 意識과 身體의 活動을 관장한다고 할 수 있다.

### 4) 身形을 縱橫하는 衝脈과 帶脈

衝脈과 帶脈은 奇經 중 陰陽의 짝이 없으며, 衝脈은 縱으로 帶脈은 橫으로 身形을 가로지르고 있다.

衝脈의 流注經路에 대하여, 『素問·骨空論』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으니, 대략 살펴보면 하복부의 氣街 혹은 胞中에서 일어나 위로는 任脈과 더불어 입술과 입에 닿고, 목구멍 즉 頰頰에서 밖으로 外出하며, 아래로는 少陰經과 더불어 순행하여 발가락에 이르고 있다.

“衝脈이라는 것은 氣街에서 일어나 少陰經과 아울러서 배꼽을 끼고 위로 순행하여 胸中에 이르러서 흩어진다.”<sup>30)</sup> 무릇 衝脈이라는 것은, ... 그 위로 뻗은 것은 頰頰에서 나와 諸 陽經에 스며들고 諸 陰經을 적신

25) 李時珍, 上揭書, pp.1754~1756. “陰蹻者, 足少陰之別脈, ... 屬目內眥, 與手足太陽足陽明陽蹻五脈會於睛明, 而上行, ... 陽蹻者, 足太陽之別脈, ... 復會任脈於承泣, 至目內眥, 與手足太陽足陽明陰蹻五脈會於睛明穴, 從睛明上行, 入髮際, 下耳後, 入風池而終.”

2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30.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日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銳眥,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

27) 李時珍, 上揭書, p.1749. “陽蹻, 起於跟中, 循外踝上行於身之左右, 陰蹻起於跟中, 循內踝上行於身之左右, 所以使機關之蹻捷也.”

2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98.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臟六腑. 今厥氣客於五臟六腑, 則衛氣獨衛其外, 行於陽, 不得入於陰,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則陽蹻陷, 不得入於陰, 陰虛, 故目不瞑.”

29) 滑壽 原著, 校註古本十四經發揮, p.77. “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 當數者, 爲經, 不當數者, 爲絡也.”

3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併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다. 그 아래로 뻗은 것은 少陰의 大絡으로 흘러들어 氣街에서 나와서 사타구니 안쪽 면을 따라 오금쟁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강이뼈 속으로 潛伏해 循行하여 안쪽 복사뼈의 뒷쪽에 이르러서 나누어진다. 그 아래로 뻗은 것은 少陰經과 아울러서 三陰經에 스며들며, 그 앞으로 뻗은 것은 潛伏해 순행하다가 발등 뼈에서 나와 발등을 따라 아래로 循行하여 큰 발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諸絡脈에 스며들어 肌肉을 따뜻하게 한다.<sup>31)</sup>

그 순행하는 과정 중에 三陽經과 三陰經으로 滲灌하여 적셔주고 溫煦시키는 滋養作用을 하고 있다. 따라서 衝脈의 기능은 少陰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靈樞·五音五味』와 「逆順肥瘦」에서는 그 기능에 대하여, 衝脈은 신체를 從行하면서 모든 陰經과 陽經을 滲灌하여 적셔주는 經脈으로 ‘經絡之海’가 되며, 藏府가 衝脈으로부터 血氣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五藏六府의 海’가 된다고도 하고 있다.

“衝脈과 任脈은 모두 胞中에서 일어나 위로 등 안쪽을 순행하여 經絡之海가 된다. 그 浮越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배를 따라 각기 올라, … 나뉘어 입술과 입에 닿으니, …”<sup>32)</sup>, “무릇 衝脈이라는 것은 五藏六府의 바다(海)이니, 五藏六府는 모두 衝脈에서 받는다.”<sup>33)</sup>

또한 衝脈은 任脈과 상호 호응하여 血氣를 조절한다. 즉 衝脈은 任脈의 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任脈이 통하여 天癸를 받아들이면, 衝脈도 隆盛해져 生殖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며, 반대로 任脈이 空虛해지면 衝脈도 쇠약해져 生殖機能을 유지할 수 없다<sup>34)</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衝脈은 모든 經脈과 五藏六府에서 소요되는 血氣의 寶庫로서 任脈을 돕고 少陰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인체의 陰氣를 涵養하는 經脈이라고 할 수 있다.

帶脈은 足厥陰經의 章門穴에서 일어나 身形을 허리 띠처럼 둘러 모든 經脈들을 團束하고 있다. 帶脈이 지나는 경로는 足少陽經의 經路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李時珍은 『奇經八脈考』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帶脈이라는 것은 季脇의 足厥陰經 章門穴에서 일어나 足少陽과 함께 帶脈穴을 따라 一身을 둘러 두루함이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과 같으며, 또한 足少陽經과 五樞, 維都에서 會合하니 무릇 八穴이다. … 楊氏가 말하기를, 帶脈은 諸脈을 총괄지어 묶어서 망령되기 행하게 하지 못하게 하니 사람이 허리띠를 매어 앞으로 늘어뜨리는 것 같으므로 이름하였으며, 婦人의 惡露는 帶脈을 따라서 내리니 그러므로 帶下라고 하였다.”<sup>35)</sup>

이는 帶脈이 正經 중 少陽經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 帶下가 帶脈의 이상으로 발생한 病變이라고 하여 子宮과 帶脈이 기능적으로 相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衝脈은 모든 經脈을 包容하고 帶脈은 團束하고 있다. 또한 流注經路 상 衝脈은 陰經의 樞인 少陰經과 帶脈은 陽經의 樞인 少陽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衝脈과 帶脈은 인체를 縱橫으로 가르는 經脈으로서 동시에 각기 正經의 少陰經, 少陽經과 짝을 맺음으로써, 인체 모든 經脈의 樞가 되어 이 經脈들의 陰陽轉化를 조절하는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奇經은 任脈과 督脈, 陰蹻脈과 陽蹻脈, 陰維脈과 陽維脈, 衝脈과 帶脈이 서로 짝이 되어, 內外, 上下, 表裏로 分化되어 각기 고유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身形의 각 부분과 經脈의 제 흐름을 통일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기 管掌하는 대상의 層差가 다르다. 任脈과 督脈은 生命의 本願之氣인 元氣의 陰陽變化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生命力的 化生과 歸宗을 주관하여, 天

3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89. “夫衝脈者, … 其上者, 出于顛顛滲諸陽, 灌諸精(『甲乙經』에는 陰字로 되어 있음).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肝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3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282~283.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各字의 誤記인 것 같음]上, … 別而絡唇口.”

3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89.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3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 “女子, …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35) 李時珍, 上揭書, p.1769. “帶脈者, 起於季脇足厥陰之章門穴, 同足少陽循帶脈穴, 圍周一身, 如束帶然, 又與足少陽會於五樞維都, 凡八穴. … 楊氏, 曰帶脈總束諸脈, 使不妄行, 如人束帶而前垂, 故名, 婦人惡露, 隨帶脈而下, 故謂之帶下”

地自然으로부터 독립한 한 生命體에서 獨自的으로 수행하는 陰陽의 分化와 統一을 주도하는 生命活動의 中樞가 된다. 陰維脈과 陽維脈은 서로 表裏가 되어 자기 陰經과 陽經을 그물처럼 엮어주고, 또 신체의 表裏를 나누어 주재함으로써, 營氣와 衛氣가 經脈에 따라 斷絶되지 않고 서로 圓滑하게 流通할 수 있도록 맺어주고 있다. 陰蹻脈과 陽蹻脈은 五藏과 體表 사이에 晝夜로 일어나는 陽氣의 放出과 陰氣의 收斂을 조절하여 意識과 身形의 活動상태를 조절한다. 衝脈과 帶脈은 身形을 縱橫으로 가르고 두르면서 모든 經脈을 包容하고 묶음으로써, 經脈들의 陰陽轉化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樞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八脈은 正經처럼 신체 내의 藏府와 身體外의 手足을 幹線으로 연결하는 經脈은 아니지만, 신체의 모든 經脈들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한 생명체가 分化속에서 統一된 氣의 움직임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正經이 三陰三陽의 원리에 따라 十二經脈으로 分化하여 生命의 中樞인 身體內의 藏府之氣와 身體外의 天地之氣를 交通케 함으로써 天地의 변화에 상응하는 植物的인 생명활동을 주재한다면, 奇經八脈은 分化한 十二經脈을 다시 陰陽으로 歸合시키고 任脈과 督脈을 貫통하는 한 元氣로 融化시켜 天地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意志의으로 독립한 한 生命體의 動物的인 生命活動을 주재함을 알 수 있다.

### III. 結論

지금까지 正經과 奇經의 流注經路와 分布部位, 機能과 作用 등을 比較考察함으로써, 正經과 奇經의 特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正經은 順行分布가 上下로 手足에 다다르고 左右로 相合하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經氣의 근원이 되는 소속 藏府의 상관관계에 따라 陰經과 陽經이 서로 表裏를 이루고 있다. 또한 身形을 開闔樞로 分化시키고 지배하여 자기 그 부위에 相合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奇經은 經脈마다 독특한 流注經路를 가지고 있으며, 陰陽의 表裏分化도 經脈 자체에 內在한 기능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藏府의 氣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며 分化보다는 統一을 지향함으로써,

正經에 의하여 分化된 身形 각 부분의 氣흐름을 통합시켜 한 생명체의 調和로운 同質性을 유지시켜 준다.

2. 正經이 三陰三陽의 원리에 따라 植物의 가지처럼 十二經脈으로 分化하여 生命의 中樞인 身體內의 藏府之氣와 身體外의 天地之氣를 交通케 함으로써 天地의 변화에 相應하는 植物的인 氣의 出入活動을 주재한다면, 奇經八脈은 分化한 十二經脈을 다시 陰陽으로 歸合시키고 任脈과 督脈을 貫통하는 한 元氣로 融化시켜 天地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극복하여 독립한 한 生命體의 動物的인 意識 및 身體의 活動性을 關望한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의 生命體로서, 正經의 分化를 통해 天地를 유행하는 三陰三陽之氣에 呼應하여 生命의 활동 중에 關여한 氣의 出入을 關望함으로써 자기 身體를 유지하고, 生命의 元氣를 토대로 한 奇經의 一體化를 통해 자기만의 독자적인 氣場을 형성하여 生命을 지키고 生命活動을 삶의 목적에 맞추어 統一시킬 수 있다.

### IV. 參考文獻

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上海.
2.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中醫古籍出版社-中社影印.
3. 楊繼洲, 針灸大成,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4. 李時珍, 本草綱目-奇經八脈考, 高文社, 1962, 서울.
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6, 서울.
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서울.
7. 滑壽, 校註古本十四經發揮, 旋風出版社, 中國.
8.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學學會誌VOL9, 大韓原典醫學學會, 1995, 서울.